

메트로폴리탄博物館 所藏
「紺紙銀字妙法蓮華經」第2卷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Lotus-Sutra vol.2 on Indigopaper with Silver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김 종 민(Kim, Jong M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변상화의 내용과 양식비교 |
| 2.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형태적 특징 | 5. 서체의 특징과 비교 |
| 3. 표지화의 비교를 통한 편년 고증 | 6. 맺음말
<참고문헌> |

<초 록>

미국 뉴욕시 소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고려시대 말(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사경은 현재 MMA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사경으로 「妙法蓮華經」 7권중 제2권만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표지와 변상화 및 사경된 서체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고 있어 미술사학적이거나 서지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되어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 사경 중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과 가장 흡사한 사경의 작례로는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사성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의 「감지금자묘법연화경」 7권본과 충목왕 원년(1345)에 사성된 日本 鏡神社 소장 「묘법연화경」 燒經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경과는 표지화와 변상화에서 흡사한 양식과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체 또한 일견하였을 때 서풍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년작인 이들 사경을 기준으로 하여 표지화, 변상화, 서체 등을 비교해 본다면 보다 근접한 제작시기를 고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나베시마 7권본, MMA본, 鏡神社본의 묘법연화경 의 표지화, 변상화, 서체의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MMA본은 기년작인 나베시마본이 만들어진 직후 사성된 사경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후기 사경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사경의 표지화나 변상화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 볼 때 MMA본은 나베시마 7권본에서 발전된 표지화와 변상화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서체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나베시마 7권본이 완성된 1340년 직후 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45년작인 鏡神社본은 이러한 MMA본의 영향을 받아 표지화가 제작되었으며 본문서체 또한 당시 사경원의 사경서자의 유행과 실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사성연대는 충혜왕대인 1340년~1342년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사경은 제침 위에 보개가 아닌 양화로 표현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경표지화를 가지고 있는 사경이라

* 자연염색박물관 학예연구사(00597003@hanmail.net)

접수일: 2007년 5월 11일 최초심사일: 2007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21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충혜왕대 사경인 나베시마 7권본과 함께 동시기의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要語 : 사경, 묘법연화경, 감지은자, 메트로폴리탄박물관

<ABSTRACT>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MA hereinafter), New York City, U.S.A., there is a second volume of <Myobeop yeonhwagyeong (Lotus of the True Law Sutra)> written on indigo papers with silver considered to have been p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the 14th century A.D.). Even though it is only the second volume out of a set of seven volumes, it could be highly valued in terms of art history and bibliography because of its well preserved cover, byeonsangdo(transformation picture) and fine handwriting.

Among the existing sutra copies of the Goryeo Dynasty, two are similar to the one at the MMA. One is the seventh volume of <Myobeop yeonhwagyeong> written on indigo paper with gold in the first year of King Chunghye's restored reign(A.D. 1340), and currently held in Nabesimahoucukai(鍋島報效會), Japan. The other is the fragment of <Myobeop yeonhwagyeong> also held in Kagamijinja(鏡神社), Japan, and written in the first year of King Chungmok's reign(A.D. 1345). These two sutra-copies have similarities in illustrations on the covers and transformation pictures, and the styles of handwriting. Therefore, by comparing these similarities, one can determine the approximate date when the sutra-copy at the MMA was made.

Since the cover paintings and transformation pictures had gradually developed and changed year by year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se three sutra-copies demonstrated such development, the sutra-copy in the MMA could be regarded as having a more developed cover painting and transformation pictures than those of the sutra-copy in Nabesimahoucukai. So it can be assumed that the sutra-copy in the MMA was probably produced right after the sutra-copy in Nabesimahoucukai, when the changes in the cover paintings, transformation pictures, and style of handwriting of the sutra-copi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over painting of the sutra-copy in Kagamijinja seems to be influenced by the sutra-copy in the MM, and its handwriting exhibits the ability of its transcriber and the trend in those days.

In conclusion, it can be assumed that the second volume of the <Myobeop yeonhwagyeong (Lotus of the True Law Sutra)> copied on indigo paper with silver in the MMA could be produced around 1340~1342(A.D.), the era of King Chunghye's reign. This sutra-copy could be the earliest example of a cover painting which has a title decorated with flowers, but not a celestial umbrella, and also be regarded to be made in the same period as the sutra-copy in Nabesimahoucukai, which has been known as the only sutra-copy made in the era of King Chunghye's reign..

Key words : Buddhist sutra-copy, Lotus of the True Law Sutra, indigo paper with silver, Metropolitan Museum of Arts

1. 머리말

미국 뉴욕시 소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고려시대 말(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사경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하 MMA로 줄여 칭함)에서 발행한 ARTS of KOREA」¹⁾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간단하여 정확한 형태와 현황을 알 수 없어 직접 조사하고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측에 의뢰하여 2006년 4월 20일 실견 및 조사를 할 수 있었다.²⁾

이 사경은 현재 MMA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사경으로 妙法蓮華經」 7권중 제2권만이 전하고 있으나 표지와 변상화 및 사성된 서체 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미술사학적이거나 서지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물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이하 MMA본)의 본격적인 소개와 현황 및 표지화와 변상화, 본문의 서체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사경들과 비교하여 현재 고려 말로 편년을 잡고 있는 본 사경의 보다 근접한 제작연대를 고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형태적 특징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을 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된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박물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 Lila Acheson Wallace」 재단에서 1994년도에 일본에서 구입하여 MMA로 기증하여³⁾ 소장하게 되었다는 것만 전할

1)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이 소개된 도서는 다음과 같다.

「Arts of Kore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1998)

「Goryeo Dynasty」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2003)

2)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동양미술부 한국미술 담당 학예사 이소영 선생, 동양미술부 특별고문 村瀬實惠子 선생, 주임연구원 渡辺雅子 선생께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뿐 더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나머지 잔권들에 대해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법화경 사경은 절첩본으로 사경의 앞뒤 표지화는 금은니로 그려지고 감지에 금니로 변상화를 그렸으며 본문은 은자로 사성했다. 변상화와 본문 사이에 약간의 충해(蟲害)가 있을 뿐 보존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림 1>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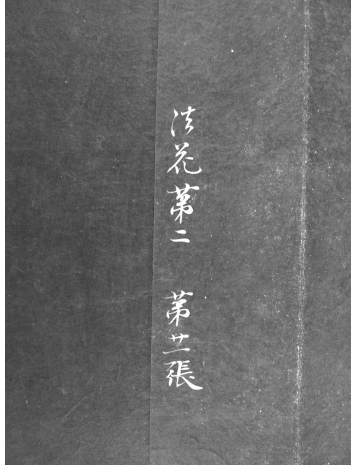
크기는 세로 33cm, 가로 11.3cm이며 사경지는 총 21장이며 한 장의 길이는 56~63.5cm 로 평균 60cm이다. 표지화의 표제는 세로 17.1cm, 가로 3.9cm의 굵은 태선과 세선으로 이루어진 장방형의 題簽에는 경전을 펼칠 때 외우는 진언인 ‘開法藏眞言’과 ‘妙法蓮華經卷第二’가 金字로 쓰였다.

변상화는 총4면으로 「법화경」 제2권의 비유품과 신해품의 내용을 알기 쉽게 도해한 것으로 우측2면에는 설법도, 좌측 2면에는 예화를 그려놓았다.

본문은 총 102면이며 발원문이나 사성기는 없다. 본문은 태선과 세선으로 이루

3) Lila Acheson Wallace endowment Fund는 다양한 동서양미술품으로 수집하여 미국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많은 작품을 기증하고 있다.

어진 쌍변의 천지선과 사란이 금니로 구획되어 있다. 천두는 5.9cm, 지각은 4.4cm, 사란의 길이는 22.6cm이다. 행간길이는 1.75cm~1.9cm의 범위 내에서 구획되었고 한 면은 6행으로 되어 있으며 1행에 17자씩 사서되어 있다. 사경지 배면에는 매 장마다 ‘法花第二’와 장의 순서가 楷行書의 金字로 적혀 있다.(그림 2)



<그림 2> 배면의 張次

현재까지 발견되어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 사경 중 MMA본과 가장 흡사한 사경의 작례로는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사성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의 「감지금자묘법연화경」 7권본(이하 나베시마 7권본)⁴⁾과 충목왕 원년(1345)에 사성된 日本 鏡神社 소장 「묘법연화경」 燒經(이하 카가미진자본)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경과는 표지화와 변상화에서 흡사한 양식과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체 또한 일견하였을 때 서풍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년작인 이들 사경을 기준으로 하여 표지화, 변상화, 서체 등을 비교분석해 본다면 보다 근접한 제작 편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사경 중 충숙왕 복위 원년(1332)에 제작된 「감지은자묘법연화경」 8권본도 있어 이와 구분하고자 ‘나베시마 7권본’으로 표기한다.

3. 표지화의 비교를 통한 편년 고증



<그림 3>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앞뒤표지화

표지화는 앞과 뒤 모두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전하고 있다. 우선 표지화의 가장자리는 금니의 태선과 세선으로 이루어진 이중선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첩도 태선과 세선으로 되어 있다.

4개의 연화문은 모두 은니로 그리고 당초문은 금니와 은니로 표현되어 있다. 은니로 화심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금니의 가는 선으로 빼곡히 심방을 채웠으며 화심에서 피어오르는 法香도 은니 테두리에 금니로 와문을 그려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첩 위에 능형의 화판을 놓고 그 위에 보개형의 복련이 표현되지만 이 사경에서는 양화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는 매우 드문 형태로 화판이 없이 양화로만 이루어진 가장 앞선 작례로는 카가미진자본(충목왕 원년(1345))이다. 따라서 이 사경의 제작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된다.⁵⁾

5) 권희경, 「고려의 사경」(대구: 글고운, 2006), 220-221.

제첩 상단의 금니로 그려진 양화와 하단 아래에 능형의 화관이 속에는 은니 점을 찍고 있다. 또한 화관 아래에도 양화가 그려져 있으며 꽃잎마다 금니 세선으로 채워져 있다.

뒤표지도 금니의 태선과 세선으로 가장자리가 그려져 있으며 4개의 연꽃이 지그재그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화심과 법향의 방향이 엇갈려져 있다. 앞표지와 마찬가지로 은니로 연꽃잎으로 그렸다. 중앙의 화심은 은니로 그리고 금니의 세선으로 꽃술과 심방이 표현되어 있다. 화심 윗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법향의 표현은 능형으로 피어나 화심에서부터 1개-2개-1개의 순서로 피어나고 있다. 이 또한 은니로 윤곽을 그리고 와문으로 채워져 있다.

연판의 중심부를 세선의 은니로 구획하고 더 가는 세선이 이를 중심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 채우고 있다.

MMA본 표지는 앞서 언급한 바 나베시마 7권본(그림 4-1)과 카가미진자본(그림 4-3)의 표지와 흡사한 점이 많다. 위 사경들의 표지 상단의 화심을 살펴보면 나베시마 7권본과 MMA본에 경우 우측으로 약 45° 정도 기울어 진 상태로 법향은 두 갈래로 나뉘어 퍼져 나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카가미진자본의 경우는 곧게 선 상태로 상향으로 두 갈래가 퍼져 나가고 있다.

연꽃의 모양은 나베시마 7권본과 MMA본의 경우 4개가 있으나 카가미진자본은 연꽃이 3개이다. 또한 진자의 두 사경은 연꽃과 연꽃을 이어주는 당초줄기가 금은니로 그려져 있으나 후자의 소경은 당초줄기가 없다.

연꽃잎의 형태는 세 사경 모두 꽃잎의 끝이 오른쪽으로 휘어진 모습에 은니선으로 꽃잎 가운데를 나누었고 줄기부분에 금니로 점을 찍은 점은 공통적이다. 또한 연꽃과 당초와의 사이를 공백으로 구분한 것도 같은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통점과는 달리 제첩 위아래의 양련과 복련의 표현은 다르다. 나베시마 7권본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로 복련의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련의 형태를 보여야 할 아랫부분도 연법표현이 조금 있고 하트형의 벌어진 꽃잎 형태로 표현되었다.

반면 MMA본의 경우는 카가미진자본에서 볼 수 있는 양화와 복련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양화의 꽃잎마다 은니점을 찍어 화려함을 더했다. 이러한 은니점은 보이는 꽃잎의 넓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7개까지 ‘山’형으로 찍혀 있는 점은 두 사경의 공통점이다. 단지 카가미진자본에 비해서 MMA본의 양화가 꽃잎의 수가 조금 더 많고 화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복련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다. MMA본의 경우는 연꽃을 선묘로만 표현하고 있고 나베시마 7권본에서 볼 수 있는 대좌형 연밥에 금니점 대신 은니점을 굵게 찍어 표현했다. 그러나 카가미진자본에서는 그 연밥의 수가 증가하고 복련의 꽃잎에도 모두 은니점을 찍어 더욱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4-1> 日本 鍋島報
效會 소장 「감지금자묘법
연화경」 7권본(1340)표지



<그림 4-2>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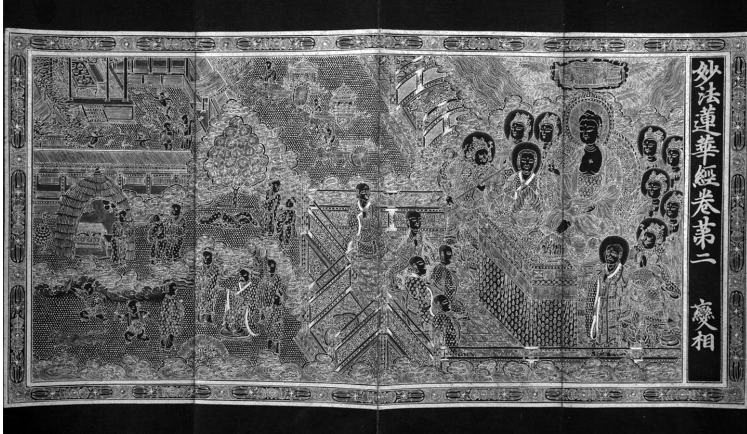
<그림 4-3> 日本 鏡神社
소장 「묘법연화경」 燒經
(1345) 표지

이러한 양화와 복련의 변화를 세 사경에 모두 적용시켜 볼 때 MMA본의 표지는 나베시마 7권본과 카가미진자본의 사성시기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카가미진자본의 표지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화와 복련의 형태는 MMA본이 가장 빠른 작례라 할 수 있겠다.

제침의 테두리를 살펴보면 모두 태선-세선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카가미진자

본이 가장 두터운 태선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침의 서체와 형태, 연꽃과 화심, 법향의 방향과 각도 등을 비교해 볼 때 나베시마 7권본의 표지와 앞서 언급한 카가미진자본과 유사한 형식이 많아 표지화의 특징으로 볼 때 1340년 이후의 작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 변상화의 내용과 양식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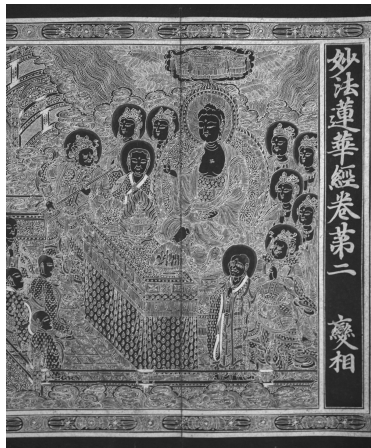
<그림 5>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화

이 사경의 변상화는 「묘법연화경」 제2권의 ‘譬喩品’과 ‘信解品’을 그림으로 도해해 놓은 것으로 4면에 걸쳐 금니로 그려져 있다. 변상화의 구도는 화면 오른쪽은 석가모니 설법도가 그려져 있고 좌측 상단과 하단 구석에는 비유품, 오른쪽 하단에는 신해품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그림 5).

고려시대 사경변상화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배치로 설법을 하는 석가모니와 석가권속들의 시선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며 청문자들이 불탁 아래에 그려져 있다.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아난과 가섭, 보살들과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고 석가모니 위에는 보개가 위치하고 있다. 변상화 가장자리에는 갈마와 금강저가

반복적으로 그려졌고 산화와 지운문에 빼곡히 그려 넣어 빈틈이 없는 고려시대 후기 사경변상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설법도(그림 6)를 살펴보면 석가모니는 결가부좌를 한 채 설법인을 하고 있어 현재 설법을 한다는 것을 표현했으며 주위를 둘러싼 가섭과 아난존자 및 보살들과 청문자들은 합장을 하고 경청하는 장면이다.



<그림 6>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화의 설법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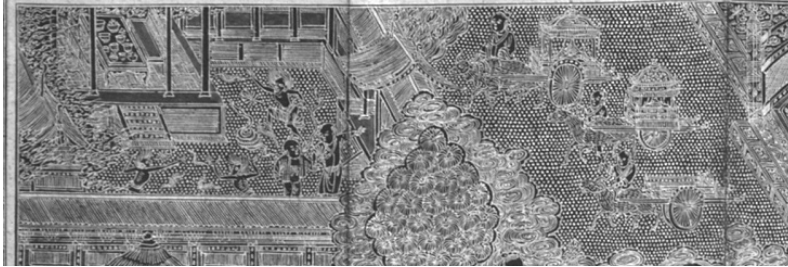
불탁 위에는 향로와 공양물이 올라 있다. 불탁을 덮은 덮개는 두 가지의 덮개가 겹쳐져 덮여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불탁의 3분의 1정도가 3단의 문양으로 덮여 보인다. 불탁의 문양은 매우 화려하며 반복된 와문형 덮개 위에 수를 놓고 술을 단 덮개가 덮여있는 형상이다.

수미단의 바닥은 모두 문양전을 깔아 놓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부분 선묘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섭과 아난의 옷깃과 소매부분과 청문자의 옷깃과 소매가 금니로 넓게 칠하였고 수미단 난간의 이음새에도 모두 금니로 칠해져 있다.

변상화의 좌측 상단에는 화염에 휩싸인 건물과 그 문 앞에 양차, 녹차, 우차 등 3대를 대기시키고 기다리는 인물들을 그려 놓았다. 이 장면은 비유품(그림

7) 가운데 화택의 비유를 묘사한 것으로 화택 안에는 불이 난 것을 모르고 놀고 있는 장자의 아이들과 함께 귀신과 독사 등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7).



<그림 7>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화 중 비유품 화택의 비유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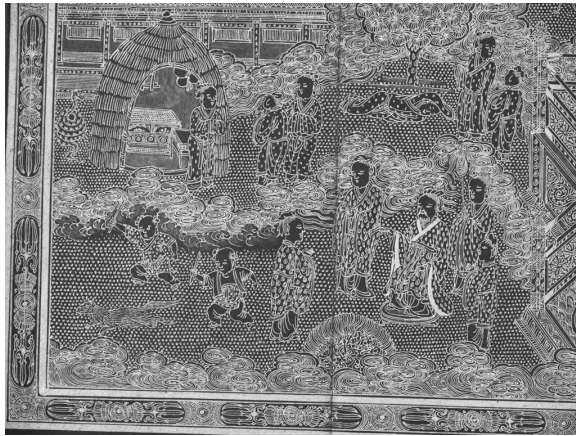
변상화 제4면의 하단에는 비유품의 偈頌의 내용 중 경전을 비방한 죄는 승냥이가 되어 마을로 들어오면 몸은 헐어서 찢어지고 한눈은 애꾸가 되어 아이들의 발에 차이고 매를 맞다가 끝내는 죽게되고 죽고 나서는 다시 구렁이로 태어난다는 내용⁶⁾이 그려져 있다(그림 8).



<그림 8>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화 중 계승의 한 장면

6)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第2卷, 「譬喻品」,
“謗斯經故 獲罪如是 有作野干 來人聚落 身體疥癩 又無一目 爲諸童子 之所打擲 受諸苦
痛 或時致死 於此死已 更受蟒身……(하략)”

신해품의 내용 중 부유한 장자와 아들에 관한 비유를 변상화 3면과 4면 하단에 배치하였다. 3면 중앙에는 장자가 사람을 시켜 아들을 데려가려 하자 겁에 질린 아들이 기절한 장면을 그렸고 4면에는 장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에게 다가간 내용을 그렸다. 3면 하단에는 장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9).



<그림 9>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 변상화 우측 하단 신해품 내용

전체적인 구도나 배치 등은 나베시마 7권본과 거의 같다. 그러나 나베시마 7권본의 변상화에는 수미단 아래쪽 좌우와 중앙부분에 3개의 보배나무가 그려져 있는 데에 반해 MMA본의 변상화에는 한그루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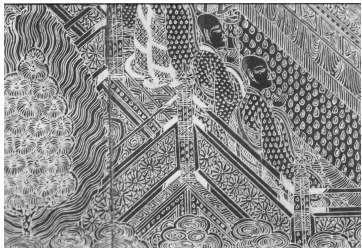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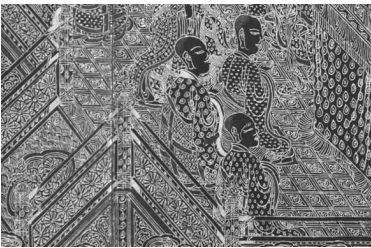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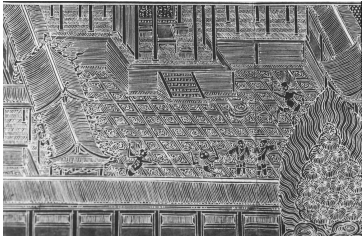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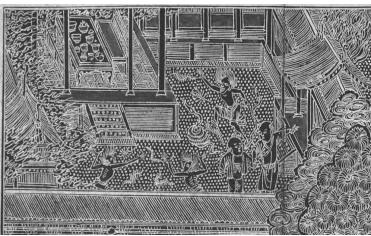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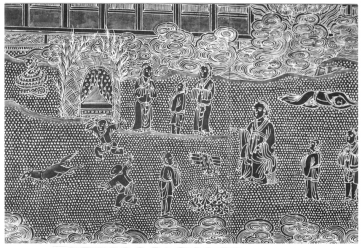
이 두 사경의 변상화를 전체적으로는 살펴보면 비교적 MMA본의 변상화가 더 화려해지고 치밀한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장인물들의 의복이 더욱 화려하고 섬세해졌으며 승냥이와 사슴, 소, 양과 같은 등장동물들의 털을 표현하는 등이 보다 묘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변상화 등의 변화를 유추해 볼 때 MMA본의 변상화는 충혜왕 복위 원년 이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MMA본의 변상화와 나베시마 7권본의 변상화를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특히

인물묘사와 의습이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천개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육각으로 보이는 가리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연봉을 중심으로 지붕을 내리고 추녀의 끝에 수술을 달아 길게 내렸다. 살짝 들린 추녀와 처마를 표현하였고 1단장식과 2겹의 술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또한 천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여백을 주고 운문으로 감싼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양식의 천개이다. 그러나 MMA본의 천개 지붕이 좀 더 화려하고 섬세한 표현을 하고 있다.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紺紙銀字妙法蓮華經」7권본(1340)	MMA소장 「紺紙銀字妙法蓮華經」제2권
天蓋		
본존	 (제2권)  (제3권)	

아난	 (제3권)	
수미단		
비유품		
신해품		

<그림 10>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감지금자묘법연화경」 7권과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변상화 부분 비교도

본존의 표현은 나베시마 7권본 제3권에 나오는 본존과 매우 흡사하다. 제2권의 본존의 경우도 비슷하나 군의의 표현이 좀 더 화려해 지는 정도이다. 우선 광배를 보면 두광과 신광 모두 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일정한 화염문을 하나씩 그려 넣었고 광배 밖으로는 화염이 피어나고 있다. 두광 안쪽에는 선묘로 화염을 표현했고 신광에는 보상화문과 당초문이 빼곡히 그려져 있는 것이 공통적이다. 나베시마 7권본 제3권의 본존과 MMA본의 본존은 승각기의 표현과 결가부좌한 무릎의 와문형 표현, 手印의 위치, 각도 등이 거의 같다(그림 10).

젊은 모습의 아난존자는 나베시마 7권본에서는 거의 측면향으로 나오지만 유일하게 제3권에서는 MMA본과 같이 정면향을 하고 있다. 정면향을 하고 있는 두 아난존자의 얼굴과 법의는 매우 닮아 있다. 특히 두광 속을 비웠다는 점과 법의의 모습도 거의 같다. 얼굴을 나베시마 7권본의 경우 미간이 조금 넓고 입과 귀가 작게 표현된 점, 삭발한 머리 형태를 표현한 점이 조금 다르다. MMA 본 아난존자의 얼굴은 나베시마 7권본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 삭발한 부분과 그 경계로 금니선으로 묘사하였고 미간 사이에 백호를 찍은 것이 다른 점이다. 손의 모양에서도 MMA본이 손가락을 묘사하는 등 좀 더 정교해진 형태이다.

수미단의 청중들의 법의문양도 비슷하고 난간과 난간을 이어주는 부분에 금니선이 아닌 금니를 두텁게 발라 표현한 점, 수미단 계단의 형태가 계단이 아닌 직선형으로 쪽 뻗어 1단으로 된 점 등 모두 같은 형태이다.

비유품의 ‘화택유’에서 불이 난 모습을 묘사한 지붕을 보면 MMA본이 보다 생생하게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귀신과 아이들의 위치는 같으나 구렁이의 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건물 내에 상이 차려져 있는 등 좀 더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졌다(그림 10).

<신해품>과 <비유품>의 계승부분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나베시마 7권본의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옷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MMA본에는 모두 와문과 화문의 도트(dot) 무늬로 채워져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유사하나 MMA본은 지운문으로 경계를 삼아 이야기 전개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변상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1340년작인 나베시마 7권본보다

MMA 본의 변상화에서 좀 더 세밀한 표현과 정돈된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에 의해 그려졌다고 볼 수도 있으며 같은 화풍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5. 서체의 특징과 비교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서체는 전형적인 송설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거의 모든 글자의 자형과 획이 송설체로 쓰이고 있어 이 사경을 쓴 사람은 송설체에 매우 능통한 서자임을 알 수 있다. 본문 중 송설체가 두드러지는 글자를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서체일부

대체로 기필부는 가늘게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행필하고 수필부도 지그시 눌러 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체가 모두 약간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같고리획은 힘차고 매우 급하게 뛰어 오르는 형상이다. 특히 ‘心’의 우만구와 ‘之’의 1획과 2획의 좁은 폭과 빠르면서도 완곡한 형태, ‘有’에서 빠른 기필과 날렵한 약획, ‘佛’의 ‘弓’에서 3획이 4획의 기필부에 붙어 있는 형태 등 고려 말 사경에서 볼 수 있는 송설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도 있고 힘 있는 운필을 보이는 구양순과는 달리 날렵한 약획과 빠르고 완곡한 횡절구를 보이는 ‘爲’는 송설체를 잘 반영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서체의 특징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經題에 나타나는 측점의 위치이다. ‘妙法蓮華經’의 ‘妙’의 ‘少’에서 약획의 바깥쪽으로 측점이 찍히는 것이다. 고

려시대의 사경에서 ‘妙’자의 측점 위치 변화는 충혜왕 대부터 발견되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기년작은 나베시마 7권본이다. 이 사경에서 ‘妙’의 측점이 ‘ノ’의 오른쪽에 찍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점의 변화는 이 사경을 기준으로 충혜왕 이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다.⁷⁾ 또한 ‘第’의 ‘竹’이 ‘卩’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이다.⁸⁾ 따라서 MMA본은 나베시마 7권본과 같은 해 또는 비슷한 시기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經題의 서체를 보면 나베시마 7권본과 MMA본의 서체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풍이 유사하다. 특히 나베시마 7권본은 「묘법연화경」 사경서체 변화의 중요한 기준작이라는 점⁹⁾에서 MMA본의 제작연대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경제 이외에도 본문의 서체 중 몇몇 글자를 비교해 보면 서체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과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감지금자묘법연화경」 7권본 본문 서체일부 비교

나베시마						
MMA						

<표 1>의 서체를 비교해 보면 운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佛’의 ‘弓’에서 3획과 4획의 기필부와 감아올리듯 하는 횡절구의 형태, 자체의 비례 등이 거의 같다. ‘子’에서도 점을 하나 찍고 그대로 이어 횡구하고 다시 기필하여 세로획을 긋고 갈고리획으로 마감하는 형태도 거의 같다. 또한 가로획의 기필과 둥근 수필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7) 권희경, (2006), 149.

8) 김종민,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백지금자묘법연화경 제4권 단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4집(2006. 11), 145. 각주(13) 참조.

9) 위의 각주.



<그림 12> 日本 鏡神社 소장 「묘법연화경」 燒經 變상화와 經題

목서로 된 카가미진자본의 서체를 보면 MMA본에서 볼 수 있는 서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다만 필체가 조금씩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따라서 사성시기가 앞선 두 사경의 서체의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경은 사경원 書者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나베시마 7권본에는 사경을 쓴 서자명이 발원문에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¹¹⁾ 발원문에 至元6年인 충혜왕 복위 원년(1340)에 柏巖과 聰古에 의해 썼다고

10) 금자나 은자로 쓰는 경우와 목서로만 쓰는 경우는 운필의 속도와 표현에 있어 조금 다를 수 있다.

11) 發願偈

妙法蓮華勝經典

金泥成願不淺

願此一部七大卷

諸佛會中隨佛現

證明諸佛無礙辯

開示衆生佛知見

發願息影沙門

施財

淵鑑

되어 있다. 발원문에는 발원자의 이름과 관직이 적혀 있어 발원자의 신분과 어떠한 인물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서자에 대해서는 사경승려였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¹²⁾ 다만 충고는 현재 대영박물관 소장의 「불설아미타경」의 발원문¹³⁾에 어머니를 위하여 「불설아미타경」을 썼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충고가 매우 많은 활동을 한 사경승려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MMA본의 서자가 충고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¹⁴⁾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가능성일 뿐이며 나베시마 7권본과 대영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의 서자는 충고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MMA본의 서체는 당시 사경승 또는 사경서자들은 충고의 서풍과 똑같은 서체를 임모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였을 것이므로 충고의 친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6. 맺음말

앞에서 표지화와 변상화, 서체에 대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나베시마 7권본과 대영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카가미진자본 등과 같은 사경들과의 연관성이

重大匡劉	成吉
掌合朱	暉
監門衛錄事朴	中漸

幹事

道者 戒禪 師憚 克倫

至元六年庚辰六月 日 柏巖 聰古 書

12) 권희경, (2006), 87.

13) 比丘聰古

特爲

慈親寫此

阿彌陀經一部以定福壽於

三寶光中祥如意者

至正元年五月 日

14) 박영숙, 『Goryeo Dynasty』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2003), 119.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MA본은 기년작인 나베시마 7권본이 만들어진 직후 사성된 사경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 후기 사경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사경의 표지화나 변상화의 경우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볼 때 MMA본은 나베시마 7권본에서 발전된 표지화와 변상화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서체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나베시마 7권본이 완성된 1340년 직후 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45년작인 카가미진자본은 이러한 MMA본의 영향을 받아 표지화가 제작되었으며 본문서체 또한 당시 사경원의 사경서자의 유행과 실력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MMA소장 「감지은자묘법연화경」 제2권의 사성연대는 충혜왕대인 1340년~1342년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사경은 제침 위에 보개가 아닌 양화로 표현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경표지화를 가지고 있는 사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충혜왕대 사경인 나베시마 7권본과 함께 동시기의 사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 權憲耕. 高麗寫經의 研究. 서울: 미진사, 1986.
- _____. 「高麗의 寫經」. 대구: 글고운, 2006.
- _____. “高麗寫經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第27輯(2004. 12).
- _____. “고려사경의 변상화.”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研究論文集 31집(1985).
- _____.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第31輯(2005. 12).
-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1.”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2.”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 _____, “韓國寫經 書體와 書者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2輯, 書誌學會(1996.).
- 김경호. 한국의 사경]. 서울: 고륜출판사, 2006.
- 金鍾珉. “麗末 鮮初 寫經 書體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2003.
- _____. “통도사정보박물관 소장 「백지금자묘법연화경」 제4권 단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4집(2006. 11).
- 조수진.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 의 比較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6.
- 「Arts of kore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1998.
- 「Goryeo Dynasty」.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2003.

